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변인에 따른 메타분석

정명자, 김민주, 김애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대체의학과

A Meta-analysis According to the Variables of the Bibliotherapy Programs

Myoung-Ja Jeong, Min-Ju Kim, Ae-Jung Kim*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변인들의 독서치료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10년(2012-2021년)간 발표된 문헌들을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86편의 문헌에서 156개의 연구를 선정하여 메타분석 한 결과 전체 독서치료의 효과크기(ES=1.193)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치료 하위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생애주기에 따른 효과는 성인(ES=2.059), 주제는 불안과 우울(ES=3.441), 회기수는 11-12회(ES=1.473), 회기당 시간은 90분 이상(ES=1.545), 총 운영시간은 601분~800분(ES=1.655), 매체는 도서와 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경우(ES=1.334), 프로그램 추가 활동 여부의 경우 적극적인 추가 활동이 포함된 경우(ES=1.582)가 각각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많은 하위 변인들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운영 특성 외에 사용하는 매체의 선택 및 적극적인 추가활동이 독서치료의 효과를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매체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추가 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맞춤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로 연결되어야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 of bibliotherapy variables on bibliotherapy treatment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published over the last decade (2012-2021). Among the 86 studies that met the purpose of this study, 156 were included for review. A meta-analysis of the selected literature revealed a considerable overall effect size of bibliotherapy (ES=1.193). An analysis of the bibliotherapy sub-variable effect size demonstrate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size when: the participant's life cycle stage was an adult (ES=2.059); the topics of anxiety and depression were discussed (ES=3.441); there were 11-12 sessions (ES=1.473); the sessions were over 90 minutes long (ES=1.545); the total session duration was 601-800 minutes (ES=1.655); the sessions involved a combination of books and video materials (ES=1.334); there was active inclusion of additional activities in the program (ES=1.582). Overall, many sub-variables impact the effect of bibliotherapy programs. Besides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the material selection used and the active inclusion of additional activities can improve effectiveness. Future studies may include an analysis of different media materials and the effectiveness of additional activities. Thi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zed bibliotherapy programs.

Keywords : Bibliotherapy, Research Trends, Meta-analysis, Korean Bibliotherapy, Variables of the Bibliotherapy

*Corresponding Author : Ae-Jung Kim(Kyonggi Univ.)

email: kaj419@kgu.ac.kr

Received March 4, 2022

Accepted April 1, 2022

Revised March 31, 2022

Published April 30, 2022

1. 서론

코로나 19의 확산은 세계적 팬데믹을 가져와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1]. UN의 2021 세계행복 보고서[2]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는 OECD 95개 국가 중 50위로 10위 이내의 경제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정신건강조사[3]에 의하면, 평소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6.7%로 매해 감소하고 있고, 62.2%가 우울감이나 불안, 심각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치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독서치료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신건강 치료법으로 다양한 정신적 문제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한다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4,5].

독서치료는 시, 동화, 소설, 그림책, 영화,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읽기 자료를 매개로 개인이 등장인물이나 사건 등에 동일시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낌으로서 치유하는 것을 말한다[6]. 독서치료는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약리적, 생리적 거부 반응이나 부작용이 없고 글이나 자료를 통하여 받아들여지는 자기 인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7]. 독서치료는 참여자가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독서 자료를 읽으며 책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정신 건강의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8].

한국에 독서치료가 소개된 것은 1964년 유중희의 번역서인 '도서관과 비브리오세라피'를 통해서이다[9]. 1970년대 들어 일부 문제성 소지자나 비행 청소년의 인성치료를 위한 연구가 시작되며, 손정표나 한상완 등에 의해 독서치료의 원리가 소개되고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10-12]. 1980년대 들어 상담 심리치료에 독서요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13], 여전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14]. 2000년대 들어 한국독서치료학회가 발족되고, 독서치료 교육 및 민간자격증 시험이 시행되면서 독서치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15-17], 도서관이나 기관을 통해 다양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4].

이후 독서치료의 프로그램 연구나 동향 연구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18], 이는 독서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반증이기도 하다[19]. 독서치료의 과학적인 효과 분석을 위해 독서치료를 주제로 한 메타분석 연구들도 계속 이뤄지고 있으나,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6편[19-24] 밖에 없으며, 이중 2편은 2010년 이전의 연구에 대한 분석이며, 일부 연구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독서치료의 효과 및 전 생애주기에 따른 효과를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20,21]. 또한 독서치료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크므로 어떠한 변인에 의해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지 세세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지만[20], 일반적인 프로그램 특성에 대한 효과크기의 나열에 그친 경우가 많다.

2015년에 발표된 이은경의 연구[22]는 선행 메타분석 연구가 놓친 독서치료의 다양한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그중 독서치료에 사용된 자료의 경우 책만 사용한 연구가 80%에 가깝지만 책과 영상을 사용한 경우 효과크기가 0.948로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독서치료 매체에 따른 효과를 처음으로 알린 대표적인 연구이다. 하지만 나머지 메타분석 연구[19,23,24]들은 비록 2020년 이후의 연구들로 최신 연구 동향과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그 사례수가 적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된 매체나 추가 활동에 대한 효과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대상으로 변인들을 세분화 하여 기존에 다루어진 생애주기, 회기 운영 특성 뿐 만 아니라 독서치료에 사용된 매체와 추가 활동 여부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해보고 이를 현대인의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독서치료의 종속 변인(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지능, 스트레스 등)과 조절 변인(생애주기, 회기 수, 회기별 단위시간, 총시간, 사용 매체, 추가활동)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PICOS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study design) 설정하여, 관심 주제의 중요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25].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P)는 전생애주기 대상이며, 중재 프로그램(I)은 독서치료프로그램이다. 비교집단(C)은

독서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이며, 해당중재의 효과(O)는 독서치료의 효과, 연구 설계(S)는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설계이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검색어로 선정해 국내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NAL(국회도서관), KISS(한국학술정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를 통해 최근 10년간의 연구(2012-2021년)를 검색하였다. 그중 석사,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총 950편이었으며, 중복 자료 및 관계없는 연구를 제외하고 1차로 선정된 논문은 총 273편이었다. 2차 검토를 통해 사전·사후 연구결과가 있는 121편의 논문이 채택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전·사후 실험설계 및 효과크기 산출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86편의 논문에서 156개의 연구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Fig. 1).

최종 선정된 86편의 연구 논문의 기본적인 정보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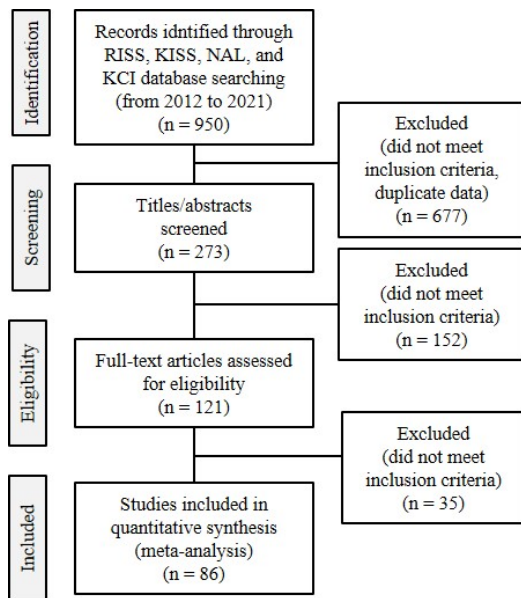


Fig. 1. Flow diagram of the study selection process

2.2 코딩 계획과 효과크기 계산

독서치료의 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정과 서의 연구[24]를 참고하여 자료 코딩 양식을 개발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출판연도와 연구자순으로 정리한 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기본 정보(통제·실험집단의 크기, 회기 수, 회기별 운영시간, 총 운영시간), 변인(생애주기, 프로그램 주제, 독서치료 프

로그래 사용 매체, 추가활동), 통계치(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기록하였다. 코딩 작업의 신뢰도 검증은 박사, 박사과정생 연구자가 각각 연구물 선정 및 코딩 작업을 실시한 후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코딩된 연구 10개를 메타분석 후 비교하는 방식으로 반복 검토하여 코딩 및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해 가며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CMA3(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효과크기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사전결과에 대한 표준화된 평균치의 차이를 통해 효과를 판별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값[26,27]이다. 결과에 대한 효과크기 계산을 위해 분산의 역수(inverse of variance)를 통해 각 효과크기의 가중치(weight)를 부여한[28], 표준화 평균차(Standard Mean Difference: SMD, Hedge’s g)를 값으로 선택하였다. 효과크기 해석은 95% 신뢰 구간을 선정해 유의성을 확인했으며, 평균 효과크기(Cohen’s D) 해석은 코헨의 엄밀 법칙[29]의 기준을 따라 0.2 미만은 효과크기 작음, 0.5 정도는 효과크기 중간, 0.8 이상은 효과크기 큼으로 판정하였다.

2.3 분석모형 및 동질성 검사

고정효과모형은 연구에서 추출된 효과들이 동질하다는 가정하에 효과를 추정하며, 랜덤효과모형의 경우 모집단이 서로 이질하다는 가정하에 효과크기의 분포 및 변량을 추정하게 된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 선택을 위해 선택된 연구들의 특성을 검토하고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2.4 출판편향 검정

출판편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깔때기 그림(funnel plot)과 출판편향을 보완할 수 있는 Trim and Fill method[30]이 있다. 깔때기 그림의 경우 출판편향이 없을 경우 표준오차가 줄게 되어 효과크기의 편차도 줄게 되므로 분포가 좌우 대칭인 깔때기 모양을 이루므로 시각적으로 출판편향을 검정할 수 있고, Trim and Fill method는 대칭이 되지 않은 연구를 제외한 후 다시 평균을 구하고, 새로운 평균을 중심으로 제외한 연구들을 복원시켜 가며 보고되지 않은 효과크기를 추정하여 채우므로 편향되지 않은 효과크기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3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판편향 검정을 위해 깔때기 그림을 통한 시각적 확인과 민감도 분석 방법인 Trim and Fill method를 통해 빠진 연구의 영향력을 추정해 보았다.

Table 1. List of research papers

First autor	Publication year	Intervention			
		Medium	Number of Session	Each session(m)	Subject
Kang CS	2021	Picture book	10	60	Personal relationship
Kim MO	2021	Picture book	8	40	Social competence
Lee DB	2021	Various books	12	80	Social competence
Lee HW	2021	Book and various mediums	12	45	Emotion, Learning and school life
Jeong DH	2021	Fairy tales	12	-	Social competence, Emotion
Choi ES	2020	Picture book	9	-	Self-esteem
Hong YH	2020	Book and various mediums	8	60	Self concept, Emotion
Kyoung JY	2019	Picture book	12	60	Self-esteem
Noh ME	2019	Fairy tales	8	-	Stress
Park JY	2019	Picture book	12	40	Social competence
Jeong HS	2019	Picture book	12	90	Learning and school life
Moon YH	2018	Picture book	8	40	Self-esteem, Emotion
Lee JY	2018	Various books	8	40	Social competence, Emotion
Jeong HH	2018	Various books	22	60	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Kang JG	2017	Picture book	10	40	Emotion, Learning and school life
Kim SG	2017	Various books	6	120	Career
Kim JH	2017	Various books	12	60	Social competence, Emotion
Park SJ	2017	Various books	18	60	Aggressive
Shin MH	2017	Fairy tales	12	40	Learning and school life
Ahn OJ	2017	Picture book	8	-	Stress, Self-esteem
Yang JW	2017	Book and various mediums	9	60	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Lee MJ	2017	Picture book	8	120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Cheon JY	2017	Book and various mediums	12	120	Family relationship, Social competence
Choi YG	2017	Picture book	10	132	Emotion
Han SM	2017	Book and various mediums	10	60	Personal relationship, Self-concept
Hong GS	2017	Book and various mediums	8	90	Social competence, Emotion
Kim EJ	2016	Various books	8	100	Self-concept, Career
Kim JN	2016	Various books	9	90	Aggressive, Social competence
Kim JH	2016	Various books	10	40	Social competence
Min GA	2016	Book and various mediums	8	90	Personal relationship, Self-concept
Song MJ	2016	Various books	11	40	Self-concept, Learning and school life
Shin YJ	2016	Picture book	12	40	Learning and school life
Shin HJ	2016	Various books	11	40	Stress
Yun HJ	2016	Various books	10	40	Learning and school life
Hong HS	2016	Fairy tales	10	60	Self-esteem
Kwon MJ	2015	Various books	8	90	Career
Kim JH	2015	Various books	9	120	Social competence
Byeon JS	2015	Picture book	10	40	Emotion
Won JS	2015	Picture book	12	50	Personal relationship, Emotion
Lee SA	2015	Various books	13	60	Self-concept, Learning and school life
Jeong SM	2015	Various books	12	50	Aggressive
Cho HG	2015	Various books	10	40	Self-esteem
Choi JA	2015	Picture book	15	-	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Tak SJ	2015	Book and various mediums	12	-	Self-concept
Heo JH	2015	Book and various mediums	8	50	Personal relationship
Kim HJ	2014	Various books	8	90	Self-concept, Career
Ryu GN	2014	Various books	12	60	Anxiety:Depression
Ryu JS	2014	Picture book	16	90	Stress
Seok JY	2014	Various books	12	50	Self-concept
Oh HJ	2014	Picture book	12	-	Self-concept, Self-esteem, Learning and school life
Won JS	2014	Picture book	12	50	Emotion
Yun NM	2014	Various books	8	80	Social competence
Jang JB	2014	Picture book	12	-	Social competence, Self-concept
Ji MS	2014	Various books	10	90	Stress, Self-esteem
Kim GW	2013	Various books	8	60	Social competence, Self-concept
Kim BN	2013	Picture book	10	50	Self-concept
Kim SR	2013	Various books	10	30	Emotion

Kim YJ	2013	Various books	12	50	Emotion
Min JH	2013	Various books	10	50	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and school life
Yun EG	2013	Picture book	12	40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Lee SH	2013	Picture book	8	90	Personal relationship
Lee JE	2013	Book and various mediums	12	90	Self-concept
Lee TY	2013	Various books	10	40	Aggressive, Personal relationship
Lee HJ	2013	Various books	12	50	Social competence
Han ES	2013	Fairy tales	8	20	Aggressive, Self-concept
Kim MJ	2012	Various books	10	120	Self-esteem
Kim MH	2012	Various books	10	60	Learning and school life
Kim SH	2012	Various books	3	120	Career
Kim YS	2012	Various books	15	120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Kim JA	2012	Fairy tales	10	90	Fairy tales
Noh SO	2012	Various books	10	40	Anxiety·Depression, Self-concept
Park SA	2012	Various books	10	90	Self-concept
Park YJ	2012	Various books	12	50	Anxiety·Depression
Park YS	2012	Various books	12	40	Aggressive
Seong JY	2012	Various books	14	60	Personal relationship, Social competence
Shon HR	2012	Various books	12	50	Self-esteem
Shim IS	2012	Various books	10	50	Stress
Lee MS	2012	Picture book	10	30	Stress
Lee YS	2012	Picture book	10	40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Lee JM	2012	Various books	10	50	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Jeon HJ	2012	Picture book	10	40	Social competence, Emotion
Cho YJ	2012	Various books	15	40	Aggressive, Social competence
Cho HJ	2012	Various books	10	-	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Jin SM	2012	Various books	10	60	Self-concept
Ha MS	2012	Various books	10	90	Career
Han YH	2012	Book and various mediums	8	80	Emotion

3. 연구결과

3.1 선정된 연구의 특성

최종 선정된 88편의 연구 문헌의 특징은 Table 1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생애주기는 취학 전 상태인 유아,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성인, 노인 등 7단계로 분류하였는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90건으로 전체연구 대상자의 57.69%로 분석되어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전 생애주기중 6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시기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은 21건(13.46%), 유아와 고등학교는 각 14건(8.97%), 성인 12건(7.69%), 대학생 3건(1.92%), 노인은 2건(1.28%) 순이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연구 주제는 총 11개로 분류하였는데, 이중 사회성과 관련된 연구가 30건(19.23%)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정서가 각각 20건(12.82%), 공격성 17건(10.90%), 대인관계 16건(10.26%), 학습 및 학교생활 12건(7.69%), 스트레스 9건(5.77%), 진로 7건(4.49%), 불안과 우울 3건(1.92%), 가족관계 2건(1.28%) 순으로 나타나 정명자 등(2021)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등 자아와 관련된 연구가 많고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연구는 적었던 것과 같은 경

향을 보였다[32].

프로그램 운영 특성을 4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프로그램 그룹의 크기, 둘째, 프로그램 운영 회기수, 셋째, 1회기당 시간, 넷째, 회기수와 회기 단위시간을 합산한 총 운영시간이다.

그룹의 크기는 21-30명인 연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명 이하로 진행된 연구가 51건으로 나타났다. 11-20명인 연구가 42건, 31명 이상인 연구도 11건으로 분석되었다.

회기수는 9-10회기인 연구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8회 이하인 연구와 11-12회인 연구가 41건으로 같았다. 13회기 이상인 연구도 15건으로 분석되었다.

1회기당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1-50분인 연구가 70건(44.87%)으로 가장 많았고, 51-90분인 연구가 51건, 90분을 초과하는 연구도 14건이었다. 15건의 경우 정확한 운영 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총 운영시간은 회기수와 1회기당 운영시간을 곱하여 알 수 있는데, 401-600분 사이인 연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400분 이하의 연구가 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601~800분인 연구가 23건, 1000분을 초과하는 연구 17건, 801-1000분인 연구가 12건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pers

Variables		Contents	Frequency (n=156)	Percentage (%)
Topics		Family relationship	2	1.28
		Aggressive	17	10.90
		Personal relationship	16	10.26
		Anxiety-Depression	3	1.92
		Social competence	30	19.23
		Stress	9	5.77
		Self concept	20	12.82
		Self-esteem	20	12.82
		Emotion	20	12.82
		Career	7	4.49
Participant's life cycle		Learning and school life	12	7.69
		Preschool child	14	8.97
		Elementary schoolchild	90	57.69
		Middle school student	21	13.46
		High school student	14	8.97
		University student	3	1.92
		Adult	12	7.69
Characteristics of program operation	Group size	The elderly	2	1.28
		less than 10 persons	51	32.69
		11~20 persons	42	26.92
		21~30 persons	52	33.33
	Number of sessions	more than 31 persons	11	7.05
		less than 8	41	26.28
		9~10	59	37.82
		11~12	41	26.28
	Each session	more than 13	15	9.62
		less than 30 minutes	6	3.85
		31~50 minutes	70	44.87
		51~90 minutes	51	32.69
		more than 90 minutes	14	8.97
	Total session duration	no data	15	9.62
		less than 400 minutes	40	25.64
		401~600 minutes	49	31.41
601~800 minutes		23	14.74	
801~1000 minutes		12	7.69	
more than 1000 minutes		17	10.90	
Medium of bibliotherapy	no data	15	9.62	
	Picture book	51	32.69	
	Various books	70	44.87	
	Fairy tales	14	8.97	
Additional activities	Book and various mediums (role-play, picture, movies, and music)	21	13.46	
	Role-play, Picture, Movies, and Music etc.	38	24.36	
	Reading books, Writing a book report, Discussion etc.	118	75.64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사용한 매체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해보았다. 그림책만 사용한 경우, 다양한 책들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동화책만 사용한 경우, 도서와 영상, 음악 등을 사용한 경우(종이로 된 책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준 경우, 노래의 가사를 이용하기 위해 음악을 함께 사용한 경우, 그림을 보여준 경우 등)이다. 여러 종류의 책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림책만 사용한 경우 51건, 도서와 영상 등을 사용한 경우 21건, 동화만 사용한

경우 14건 순으로 분석되었다.

추가활동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독후감 쓰기, 책 내용 토론, 읽기 등만 하는 경우와 다양한 놀이나, 역할극,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등의 적극적인 추가활동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역할극, 놀이 등 적극적인 추가활동이 있는 프로그램은 38건으로 총 연구의 1/4정도가 일반적인 독서활동 외의 추가활동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3.2 분석모형 및 동질성 검사

고정효과모형은 연구에서 추출된 효과들이 동질하다는 가정하에 효과를 추정하며, 랜덤효과모형의 경우 모집단이 서로 이질하다는 가정하에 효과크기의 분포 및 변량을 추정하게 된다[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 선택을 위해 선택된 연구들의 특성을 검토하고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정과 가설검정 결과 (Table 3) 분석대상 연구들이 서로 동질하다는 영가설은, Q-value 값이 742.313이고, p-value가 유의하기 때문에 동질하다는 영가설은 기각되고, 분석대상 연구들은 서로 이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Q값이 df 값보다 크므로 모집단의 효과크기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Higgin's I^2 값 역시 79.119로 통계적 이질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에 사용된 각각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 및 종속 변인 측정 도구간의 큰 이질성이 관찰되었으므로 랜덤효과 모형을 적용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Heterogeneity

Model	Q-value ¹⁾	df(Q)	p-value	I^2 ²⁾
Fixed	742.313	155	<0.000	79.119

¹⁾Q: Q statistics, ²⁾ I^2 : Higgin's I^2 statistics.

3.3 출판편향 검증

출판편향 검증을 위해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상단에 분포하며, 평균효과크기 주변에 분포되어 있어 신뢰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완벽한 대칭으로 존재하지는 않았기에, 출판오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절삭 및 채움 방법(trim & fill method)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비대칭 분포를 대칭으로 만들기 위해 11개의 연구를 추가한 결과 효과크기가 1.193에서 1.313으로 10% 가량 높아졌으나, 신뢰구간이 1.179에서 1.4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반복할 만큼 분석대상 논문의 출판편향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Fig. 2, Table 4).

Table 4. Duval and Tweedie's trim and fill

	Studies trimmed	Effect size	Low limit	Upper limit	Q-Value
Observed values	-	1.193	1.070	1.316	742.313
Adjusted values	11	1.313	1.179	1.447	1067.741

Funnel Plot of Standard Error by Hedges's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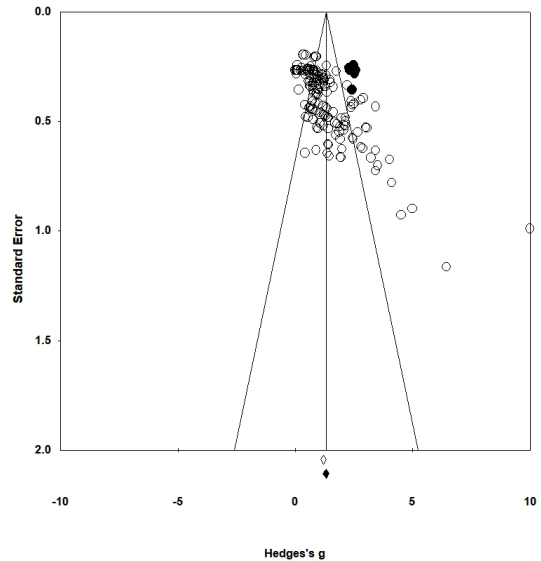


Fig. 2. Funnel plot for publication bias

3.4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효과크기

독서치료의 전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총 88편의 논문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156개의 연구를 선택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동질성 검사에서 각 연구들은 이질하다고 판명되었기에 (Table 3) 랜덤효과 모형으로 전체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랜덤효과 모형에 의한 본 연구의 독서치료 전체의 평균 효과크기는 1.193으로 나타났다. 전체효과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은 1.070-1.316으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효하였으며, 효과크기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9](Table 5). 고용남[20]은 132개의 독서치료 상담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가 1.42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고, 본 연구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의 연구(2020년 이전 연구 전체)를 분석한 최문영[19]의 경우 191개의 연구 사례에서 본 연구보다 낮은 효과크기(ES=0.93)를 보였다. 이는 연구 시기나 사례수에 따른 차이로 보여진다.

3.4.1 생애주기에 따른 효과크기

생애주기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생애주기는 취학 전 상태인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노인 등 7단계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는데, 성인 대상 독서치료의 효과크기가 2.059로 가장 컸으며, 표준오차는 0.317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효

효과크기가 1.505, 표준오차는 0.162로 생애주기 중 두 번째로 독서치료의 효과가 큰 단계로 분석되었다. 유아(ES=1.126), 초등학생(ES=1.079), 노인(ES= 1.003), 대학생(ES=0.860) 순으로 효과크기가 컸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0.590으로 다른 생애단계들의 효과크기가 매우 컸던 것에 반해 보통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모든 생애주기의 통계 결과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생애주기에 따른 독서치료의 효과크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4.2 프로그램 주제에 따른 효과크기

프로그램 주제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11개의 주제 중 가장 효과가 큰 주제는 불안과 우울로 효과크기는 3.441, 표준오차는 0.851이었다. 스트레스

(ES=2.413), 진로(ES=2.054), 가족관계(ES=2.004), 대인관계(ES=1.441), 학습 및 학교생활(ES=1.179), 정서(ES=1.095), 사회성(ES=1.082), 자아개념(ES=1.067), 자아존중감(ES=0.948), 분노(ES=0.857) 순으로 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주제의 효과가 매우 큰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프로그램 주제의 통계 결과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프로그램 주제에 따른 독서치료의 효과크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은경[15]의 연구에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주제가 자아존중감, 정서, 대인관계 순으로 연구 사례수가 많았지만, 효과크기는 진로(1.140), 학습 및 학교생활(1.072), 자기표현(1.001) 순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Table 5. Total bibliotherapy effect size

K ¹⁾	ES ²⁾	SE ³⁾	95% CI ⁴⁾	p-value	Q ⁵⁾	I ⁶⁾
156	1.193	0.063	1.070-1.316	<0.001	253.382	38.828

¹⁾K: Number of study, ²⁾ES: Effect size (point estimate), ³⁾SE: Standard error, ⁴⁾CI: Confidence interval, ⁵⁾Q: Q statistics, ⁶⁾I: Higgin's I statistics.

Table 6. The bibliotherapy effect size by life cycle

Life cycle	K ¹⁾	ES ²⁾	SE ³⁾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Lower	Upper	
Preschool child	14	1.126	0.149	0.833	1.418	<0.001
Elementary schoolchild	90	1.079	0.082	0.918	1.241	<0.001
Middle school student	21	1.505	0.162	1.199	1.810	<0.001
High school student	14	0.590	0.271	0.059	1.122	0.029
University student	3	0.860	0.206	0.456	1.264	<0.001
Adult	12	2.059	0.317	1.437	2.681	<0.001
The elderly	2	1.003	0.401	0.217	1.789	0.012

¹⁾K: Number of study, ²⁾ES: Effect size (point estimate), ³⁾SE: Standard error.

Table 7. The bibliotherapy effect size by subject

Life cycle	K ¹⁾	ES ²⁾	SE ³⁾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Lower	Upper	
Family relationship	2	2.004	0.622	0.785	3.224	0.001
Aggressive	17	0.857	0.204	0.458	1.256	<0.001
Personal relationship	16	1.441	0.199	1.052	1.831	<0.001
Anxiety-Depression	3	3.441	0.851	1.773	5.108	<0.001
Social competence	30	1.082	0.129	0.804	1.308	<0.001
Stress	9	2.413	0.502	1.429	3.396	<0.001
Self-concept	20	1.067	0.135	0.802	1.331	<0.001
Self-esteem	20	0.948	0.079	0.793	1.103	<0.001
Emotion	20	1.095	1.137	0.827	1.363	<0.001
Career	7	2.054	0.444	1.183	2.925	<0.001
Learning and school life	12	1.179	0.219	0.749	1.608	<0.001

¹⁾K: Number of study, ²⁾ES: Effect size (point estimate), ³⁾SE: Standard error.

3.4.3 프로그램 운영특성에 따른 효과크기

프로그램 운영특성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프로그램 총 회기수에 따른 효과는 11-12회가 1.473으로 가장 컸으며, 13회 이상(ES= 1.143), 8회 이하(ES=1.159), 9-10회(ES=1.031)순으로 높게 나타나 총 회기수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프로그램 회기당 시간에 따른 효과의 경우 90분 이상인 경우 1.545로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51분-90분(ES=1.400), 31분-50분(ES=1.060), 알 수 없음(ES=1.045), 30분 미만(ES=0.538) 순으로 높게

나타나 회기당 시간이 길수록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30분 미만인 경우도 효과크기가 보통수준이었으며, 통계 결과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효과크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총 운영시간에 따른 효과의 경우 601분-800분이 1.655로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1000분 이상(ES=1.618), 801분-1000분(ES=1.552), 401분-600분(ES=1.320) 순으로 높게 나타나 운영시간에 따른 독서치료의 효과크기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400분 미만인 경우 0.632로 보통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여, 회기당 시간 결과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시간이 총

Table 8. The bibliotherapy effect size by characteristic of session

	K ¹⁾	ES ²⁾	SE ³⁾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Lower	Upper		
Number of session	less than 8	41	1.159	0.111	0.942	1.376	<0.001
	9-10	59	1.031	0.102	0.831	1.231	<0.001
	11-12	41	1.473	0.140	1.199	1.747	<0.001
	more than 13	15	1.143	0.155	0.839	1.446	<0.001
Each session	less than 30 minutes	6	0.538	0.150	0.243	0.832	<0.001
	31-50 minutes	70	1.060	0.094	0.876	1.245	<0.001
	51-90 minutes	51	1.400	0.133	1.139	1.661	<0.001
	more than 90 minutes	14	1.545	0.232	1.091	1.999	<0.001
	no data	15	1.045	0.124	0.802	1.288	<0.001
Total session duration	less than 400 minutes	40	0.632	0.093	0.438	0.438-0.83	<0.001
	401-600 minutes	49	1.320	0.109	1.106	1.106-1.534	<0.001
	601-800 minutes	23	1.655	0.195	1.273	1.273-2.036	<0.001
	801-1000 minutes	12	1.552	0.269	1.025	1.025-2.079	<0.001
	more than 1000 minutes	17	1.618	0.195	1.236	1.236-1.999	<0.001
	no data	15	1.045	0.124	0.802	0.802-1.288	<0.001

¹⁾K: Number of study, ²⁾ES: Effect size (point estimate), ³⁾SE: Standard error.

Table 9. The bibliotherapy effect size by mediums

Life cycle	K ¹⁾	ES ²⁾	SE ³⁾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Lower	Upper	
Picture book	51	1.050	0.119	0.816	1.283	<0.001
Various books	70	1.332	0.089	1.157	1.506	<0.001
Book and various mediums (role-play, picture, movies, and music)	21	1.334	0.153	1.034	1.634	<0.001
Fairy tales	14	0.858	0.145	0.574	1.142	<0.001

¹⁾K: Number of study, ²⁾ES: Effect size (point estimate), ³⁾SE: Standard error.

Table 10. The bibliotherapy effect size by additional activities

Life cycle	K ¹⁾	ES ²⁾	SE ³⁾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Lower	Upper	
Additional activities	39	1.582	0.153	1.283	1.881	<0.001
None or no data	117	1.056	0.068	0.923	1.188	<0.001

¹⁾K: Number of study, ²⁾ES: Effect size (point estimate), ³⁾SE: Standard error.

분하지 않을 경우 독서치료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4.4 프로그램 사용 매체에 따른 효과크기

프로그램 사용 매체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책만 단독으로 사용한 세 가지 경우(그림책, 혼합도서, 동화책) 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효과크기가 1.334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개발서나 특화된 책을 선택하여 혼합해 사용한 경우도 그 효과크기가 1.332로 다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책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는 1.050, 동화책을 사용한 경우도 0.858로 효과크기는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 결과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효과크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4.5 프로그램 추가 활동에 따른 효과크기

프로그램 추가 활동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독후감 쓰기, 책 내용 토론, 읽기 등만 하는 경우와 다양한 놀이나, 역할극,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등의 적극적인 추가활동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적극적인 추가활동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경우 효과크기가 1.582로 일반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ES=1.056)보다 높게 나타나, 다양한 매체를 사용했을 때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추가 활동에 따른 효과크기의 통계 결과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효과크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4. 결론

독서치료는 다양한 읽기 자료를 매개로 하며[6],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역할극이나 그림그리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는[33]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4].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독서치료의 프로그램 연구나 동향 연구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11], 최신 연구 동향과 효과에 대한 분석 사례수가 적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된 매체나 추가활동에 대한 효과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과학적 검증을 위

해 지난 10년(2012-2021년)간 발간된 국내 석,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각 변인별 효과크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최근 10년간의 연구(2012-2021년)를 검색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86편의 논문에서 156개의 연구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90건으로 전체연구 대상자의 57.69%로 분석되어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서치료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사회성,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정서 등 이었으며, 가족관계나 불안과 우울, 진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적었다. 프로그램 그룹은 21-30명인 연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기수는 9-10회기인 연구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1회기당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1-50분인 연구가 70건(44.87%)으로 가장 많았고, 51-90분인 연구가 51건, 90분을 초과하는 연구도 14건이었다. 프로그램의 총 운영시간은 401-600분 사이인 연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된 매체는 다양한 책들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독서치료에 적극적인 추가활동을 넣어 운영한 프로그램은 38건으로 총 연구의 1/4정도가 일반적인 독서활동 외의 추가활동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운영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서치료의 전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총 88편의 논문에서 156개의 연구를 선택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독서치료 전체의 효과크기는 1.193으로 나타나 그 효과크기가 매우 컸다. 각 하위요인에 따른 효과크기는 다음과 같다.

생애주기에 따른 효과는 성인 대상 독서치료의 효과크기가 2.059로 가장 컸으며, 중학생(ES=1.505), 초등학생(ES=1.079), 노인(ES=1.003), 대학생(ES=0.860) 순으로 효과크기가 컸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0.590으로 다른 생애단계들의 효과크기가 매우 컸던 것에 반해 보통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프로그램 주제에 따른 효과는 불안과 우울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크기가 3.441로 가장 컸으며, 스트레스(ES=2.413), 진로(ES=2.054), 가족관계(ES=2.004), 대인관계(ES=1.441), 학습 및 학교생활(ES=1.179), 정서(ES=1.095), 사회성(ES=1.082), 자아개념(ES=1.067), 자아존중감(ES=0.948), 분노(ES=0.857) 순으로 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나 모든 주제의 효과가 매우 큰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 총 회기수에 따른 효과는 11-12회가 1.473으로 가장 컸으며, 13회 이상(ES= 1.143), 8회 이하(ES=1.159), 9-10(ES=1.031) 순으로 높게 나타나 총 회기수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회기당 시간에 따른 효과의 경우 90분 이상인 경우(ES=1.545)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51분-90분(ES=1.400), 31분-50분(ES=1.060), 알 수 없음(ES=1.045), 30분 미만(ES=0.538) 순으로 높게 나타나 회기당 시간이 길수록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총 운영시간에 따른 효과의 경우 601분-800분이 1.655로 효과크기가 가장 컸다가, 801분-1,000분(ES=1.552)의 경우 효과크기가 줄어들고, 다시 1,000분 이상(ES=1.618)에서는 효과크기가 커졌다.

프로그램 사용 매체에 따른 효과의 경우 도서와 영상 등을 함께 활용했을 때 그 효과(ES=1.334)가 가장 컸다. 자기개발서나 특화된 책을 선택하여 혼합해 사용한 경우(ES=1.332), 그림책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ES=1.050), 동화책을 사용한 경우(ES=0.858) 모두 효과크기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추가 활동에 따른 효과의 경우 적극적인 추가 활동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경우 그 효과크기가 1.582로 추가 활동이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ES=1.056)보다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메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ES=0.590), 1회기당 시간이 30분 미만(ES=0.538)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코헨의 어림 법칙 [29]의 기준에서 효과크기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고, 제외한 두 경우도 그 효과가 중간크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프로그램들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기당 시간은 길수록 효과가 좋았고, 회기수는 11-12회가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총 운영시간의 경우 801분-1,000분을 기준으로 800분 미만인 경우와 1,000분 이상인 경우의 효과가 더 높았다. 이는 시간과 회기수를 알맞게 했을 때 효과크기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용 매체에 따라 그 효과크기가 달라지고, 전체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ES=1.193)나 다양한 매체의 효과(ES=1.334) 보다 적극적인 추가활동의 효과크기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사용하는 매체와 추가활동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다보니 사용한 매체를 더 상세하게 분류하지 못하고, 추가활동의 영역도 세분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다보니 매체나 추가활동 등에 대해 분류하고 세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매체와 추가활동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매체와 추가활동에 대한 정의, 프로그램 내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하고자 한다.

후속 연구 이후에 세분화된 매체와 추가활동에 대한 효과 분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또한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조건들을 조합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로 연결되어야 하겠다.

References

- [1] B. R. Kim, H. M. Kwon, M. S. Kim, Y. H. Lee, "The effects of disaster safety perception on subjective well-being of residents in Busan-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tr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4, pp. 147-162, Aug. 2020.
DOI: <https://doi.org/10.22143/HSS21.11.4.12>
- [2] J. F. Helliwell, R. Layard, J. D. Sachs, J. De Nerve, L. B. Akin, S. Wang, World happiness report 2021,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21 Available From: <https://happiness-report.s3.amazonaws.com/2021/WHR+21.pdf> (accessed Feb. 7, 2022)
- [3]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NATIONAL MENTAL HEALTH STATISTICS 2019, Available From: https://www.ncmh.go.kr:2453/ncmh/board/commonView.do?no=3411&fno=112&depart=&menu_cd=04_01_00_01&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1 (accessed Jan. 23, 2022)
- [4] J. E. Baek, "A study on relation analysis between book and category in bibliotherapy catalog",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6, No.2, pp.217-239, June 2015.
- [5] J. E. Baek,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9, No.1, pp.5-26, Mar. 2018.
DOI: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1.005>
- [6] Y. J. Jung,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literature therapy", *Munyaundong*, Vol.93, pp.388-409, Mar. 2007.
- [7] G. C. Jung, Theory and practice of reading education, p.728, Youkrackbooks, 2000, p.728
- [8] S. H. Choi,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social self-concepts and human relation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orea, p.101, 1997.
- [9] J. H. You, "Library and bibliotherapy", *Journal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Vol.1, No.3, pp.133-139, June 1964.
- [10] B. S. Kim, "A study on bibliotherapy for personality therapy", *Educational research*, Vol.25, pp.12-15, Dec. 1968.
- [11] J. P. Son, "A review on bibliotherapy as a psychotherapy", *Library*, No.226, pp.33-42, Jan. 1978.
- [12] S. W. Han, "A review on youth reading guidance based on the principles of bibliotherapy", *Journal of the Library Society*, Vol.3, pp.11-13, Mar. 1976.
- [13] D. W. Youn, "A technical study of life guidance counseling psychotherapy", *The Student Life Research report*, Vol.9, pp.51-62, Dec. 1983.
- [14] B. H. Hwang, Introduction to reading psychology, p.205, Book Culture, 1988, pp.1-205
- [15] S. G. Lim, "An analysis on bibliotherapy experiences of bibliotherapists in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7, No.2, pp.417-436, June 2016.
- [16] Korea Association of Bibliotherapy, History, Available From: http://www.bibliotherapy.or.kr/new/sub02_02.php (accessed Jan. 20, 2022)
- [17] Y. O. Han, "A study of the basic factors of bibliographic tool for the bibliotherap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37, No.1, pp.5-25, Mar. 2003. DOI: <https://doi.org/10.4275/KSLIS.2003.37.1.005>
- [18] H. J. Lee, Y. S. Oh, "An Exploratory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related to school life : Focusing on Dissertations from 2011 to 2020", *Journal of Reading Research*, No.58, pp.291-326, Feb. 2021. DOI: <https://doi.org/10.17095/JRR.2021.58.10>
- [19] M. Y. Choi, C. G. Park, J. S. Kim, "A meta-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bibliotherapy programs" *The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Vol.41, No.2, pp.401-414, Oct. 2021. DOI: <https://doi.org/10.34245/jed.41.2.401>
- [20] Y. N. Ko, M. W. Lee, "A meta-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bibliotherapy group counsel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2, pp.489-504, Apr. 2011.
- [21] S. O. Um, *A meta analysis on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for adolescents*, Master's thesis,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pp.54-55, 2012.
- [22] E. G. Lee, *A Meta-Analysis in the Effectiveness of Bibliotherapy Group Counselling : Focusing on the Study from 2009 to 2013*,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73, 2015.
- [23] S. Y. Kim, *A meta-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bibliotherapy program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of Special Education, Yongin, Korea, pp.23-26, 2020.
- [24] K. J. Jung, E. H. Seo, "A meta-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bibliotherapy", *Journal of Reading Research*, No.61, pp.163-190, Nov. 2021. DOI: <http://dx.doi.org/10.17095/JRR.2021.61.5>
- [25] H. Cooper, Research synthesis and meta-analysis: A step-by-step approach, p.360, Sage publications, 2016, p.350. DOI: <https://doi.org/10.1016/j.system.2017.12.012>
- [26] S. K. Myung, W. Ju, D. D. McDonnell, Y. J. Lee, G. Kazinets, C. T. Cheng, J. M. Moskowitz, "Mobile phone use and risk of tum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Vol.27, No.33, pp.5565-5572, Nov. 2009. DOI: <https://doi.org/10.1200/JCO.2008.21.6366>
- [27] H. Kang, "Statistical considerations in meta-analysis", *Hanyang Medical Reviews*, Vol.35, No.1, pp.23-32, Feb. 2015. DOI: <https://doi.org/10.7599/hmr.2015.35.1.23>
- [28] M. Borenstein, L. V. Hedges, J. P. Higgins, H. R. Rothstein,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p.421, John Wiley & Sons, Ltd, 2009, pp.15-75, DOI: <http://dx.doi.org/10.1002/9780470743386>
- [29]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p.567,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8, pp.24-40
- [30] S. Duval, R. Tweedie, "Trim and fill: a simple funnel-plot-based method of testing and adjus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Biometrics*, Vol.56, No.2, pp.455-463, Jun, 2000. DOI: <http://dx.doi.org/10.1111/j.0006-341x.2000.00455.x>
- [31] S. D. Hwang,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Its meaning and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23, No.1, pp.1-19, Mar. 2016. DOI: <http://dx.doi.org/10.15284/kjhd.2016.23.1.1>
- [32] M. J. Jeong, M. J. Kim, A. J. Kim, "Analysis of the development history of bibliotherapy in Korea and research trends by life cyc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2, pp. 792-805, Dec.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2.792>
- [33] M. H. Lee, "An analysis of research behaviors in bibliotherapy programs: Focusing on journal articles during 2001-2014",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5, No.4, pp. 147-169, Dec. 2014. DOI: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4.25.4.147>

정 명 자(Myoung-Ja Jeong)

[정회원]



- 2011년 2월 : 평택대학교 특수상담학(독서치료전공) (상담학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학원 대체의학과 재학 중
- 2011년 1월 ~ 현재 : 한국발달독서치료협회 회장
- 2021년 2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겸임교수

〈관심분야〉

독서치료, 심리상담, 매체치료

김 민 주(Min-Ju Kim)

[정회원]



- 2018년 8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대체의학과 (대체의학박사)
- 2016년 9월 ~ 2018년 8월 :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강사
- 2018년 9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학원 대체의학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대체의학, 건강음식, 독서치료

김 애 정(Ae-Jung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가정학 학사)
- 198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가정학 석사)
- 1992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 1993년 3월 ~ 2011년 8월 : 혜전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대체의학, 임상영양, 기능성식품, 독서치료